

부모세대가 받은 훈육방법과 그들의
자녀 훈육방법과의 비교
—서울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ciplinary Method in Korean Family:
Comparing the cases of two gener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대학원생 金 喜 淑
교 수 李 貞 德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e Sook Kim
Prof.; Chung Duc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at of the children in the disciplinary methods by means of parental social population variation.

With these purpose in mind, the problems have been suggested like following:

- 1)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of between the two generations of parents and children in disciplinary method?
- 2)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of the views between those two generations according to sex?
- 3)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 generation according to age?
- 4)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 generation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 5) What are the gene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 generation according to income leve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on this appendix 374 parents (father: 177, mother: 197) who have the children.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n "Parents Inventory" of Radke were employed, classified five measures.

To test and verify the above hypotheses, the following five measures were used.

- 1) Philosophy of authority (authoritarian vs. democratic)
- 2) Parental restriction (strict and stubborn vs. democratic)
- 3) Severity of punishment (severity vs. mildness)
- 4) Parent-child rapport (desirable vs. undesirable)
- 5) Relative responsibility of father and mother towards child disciplinary (equal vs. diff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 follows:

1) In general comparison of two generations, tends to be more democratic in the philosophy of authority, more relaxed and easygoing in the parental restriction, more severe in the severity of punishment, and good rapport in the parent-child rapport than grandparents gener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father don't change but that of mother tends to augment in child disciplinary

2) In comparison of two generations according to sex, the mother showed more democratic in the philosophy of authority and closely perceive her parents in the parent-child rapport as compared with the father.

3) In comparison of two generations according to age, the younger parents showed more relaxed attitudes towards the child disciplinary, the perception better relations of their parents in the parent-child rapport.

4) In the comparison of two generation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the more educated parents showed the more relaxed and easygoing attitude towards in the parental restriction.

5) In comparison of two generations according to income, as the parents of large income generally (not always) showed easygoing than their previous generation in the parental restriction, and they perceive that they have a good one in parent-child rapport.

This study caused by the some difficult problem required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result of two generations the problems happened in the inner unitary of items. And, it proposed some problems which constitutes the problems of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between two generations brought about discordance of items between two generations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인간이 한 個體로서 성인으로 성장되어 가는 發達

過程에는 잠재적 특질이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것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 이를 경험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자를 유전요인 또는 성숙요인이라 하고, 후자를 환경요인 또는 학습요인이라 한다(김성태, 1970).

환경이란, 개체와 기능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일정한 접촉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대상과 조건 등을 말한다. 발달과정에서 있어서 개체와 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개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개체의 性, 연령, Personality,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환경은 의도적·인위적으로 操作이 용이하므로 유전적 소질이라는 하나의 가능성 위에 學習 또는 教育이라는 환경을 조성하여 최선의 발달을 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李貞德, 1986).

그 환경가운데서 인간의 성장발달에 家庭이 주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크며,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서,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教育 및 社會化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作用因(Socializing agent)인 것이다. 부모란 자녀의 대인관계나 交渉樣式의 최초의 모델이며, 자녀에게 어떤 특성이 형성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진행하므로(Hurlock, 1983)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후일의 성격과 행동, 認知的 능력들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한 家系 안에 있어서도 각 世代는 변화되는 사회환경에서 家政生活를 영위하게 되므로 世代間의 子女 訓育方法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 논문은 한 가정의 父母世代, 子女世代間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적 차이점을 추적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훈육방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전반적인 훈육방법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4) 부모의 교육수준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5) 부모의 수입정도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訓育의 정의

訓育을 의미하는 영어의 discipline은 지도자를 따르거나 또는 가르침을 받는 弟子, 즉 disciple에서 유래한 것이다.

訓育이란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부모, 선생님, 성인들에 의해서 마련된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어린이가 위반할 때 사용된다. 부모와 교사는 지도자이며, 자녀는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弟子이다(Hurlock, 1983).

훈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개념과 긍정적인 개념의 두 가지가 있다. 부정적인 개념의 훈육은 外的인 권위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며, 긍정적인 개념의 훈육은 내적인 성장, 즉 자기훈련(Self-discipline), 자기통제(Self-control)를 강조하는 교육을 뜻한다. Bergardt(1964)는 훈육은 수정하는 것이 아닌 훈련(training), 벌을 주는 것이 아닌 지도(guiding), 제한, 금지가 아닌 학습조건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미의 훈육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개념의 훈육은 성숙을 조장시키지만, 부정적인 개념의 훈육은 개인의 비성숙성을 조장한다. 훈육은 자녀를 인정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개념의 훈육은 부정적인 개념의 훈육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

Breckenridge & Vincent (1965)는 훈육이란 아동을 심하게 억압하거나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이 자신의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점차 통제할 수 있고 사회화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훈육은 아동의 감정반응을 자유롭게 느끼도록 허락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보다 창의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훈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個人이 同一視한

문화적인 집단에 의해 규정된 役割을 따르게 하는 것 (Hurlock, 1983)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에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협조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며, 그 양육의 과정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에 큰 알력이 없이 서로가 다 행복하게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Jersild (1960)는 “훈육의 목적은 자유를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큰 자유를 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Bernhardt (1964)는 모든 어린이는 융통성과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훈육의 요소가 되며,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함에 따라 통제에서 지도로 변해야 한다고 하였다.

2. 현대사회변화에 따른 가정변화

1) 가정의 기능변화

Gerald R. Leosl (1979)은 근대가족의 문제는 그 기능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속한 기술적 진보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첫째, 과거의 경제적 자급자족단위의 성격을 지니온 가족은 점차 그 경제적 기능을 타기관에 이양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의 아내 역할의 축소와 여성의 외부고용기회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둘째, 전통적으로 가족은 그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이나 질병, 노후의 실업에 대해서 보호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근대사회에서는 그 보호적 기능을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대부분을 이양하였다.

셋째, 처음에는 가족은 하나의 밀접한 종교공동체였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었으며 자녀의 출산은 성스러운 의무였다. 가족은 윤리적인 모범과 그 확립 내지 유지에 있어서 우선적인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종교가 거의 가정밖으로 추방되었다.

넷째, 오늘날 가족단위의 오락은 거의 없어지고 대체로 교회, 학교 등의 사회집단이나 상업적인 오락으로 대체되었다.

다섯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가족과의 교육체계면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학교에

서의 節例가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의 그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대사회에서는 지위부여의 기능이 극도로 弱化되었다. 이웃과의 접촉은 거의 없으며 그 집의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직업에 의해 부여되며 그 직장을 떠날 때는 자동적으로 그 지위가 소멸된다.

이상의 가족기능변화와 동시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사이라는 두 차원에서의 애정적·인격적 기능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

2) 가족의 역할변화

Alice Rossi (1968)는 부모역할의 특징을 첫째, 남자보다 여자가 부모역할의 수행에 대한 문화적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 둘째, 성인의 다른 역할과 비교해 볼 때, 부모의 역할은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부모로서의 역할은 취소될 수 없다. 넷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준비에 비하면 미흡하다라고 하였다.

Jerry J. Bigner (1985)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표현적인 특징으로 사랑하고 따스함을 나타내며, 가족의 중재자이며 위안자이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은 도구적인 기능으로 관리자이며 행정자이고 자녀에 대한 벌, 훈육, 통제의 최종 결정자이며 집행자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변화로 오늘날의 부모는 兩性(androgrnous)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즉, 어머니는 도구적인 면과 표현적인 면을 융합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아버지에게도 표현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역할구분이 명확했으나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자들의 생활영역을 사회전역으로 확장시켜 부부관계와 가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가족제도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결을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일반적 특질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자녀관계는 유전인자에 의한 생물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관계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출생이후 부모의 사망까지 계속되는 영속적이고

운명적인 공동관계이다. 세째, 부모편에서는 자녀란 사회화 대상의 최우선적인 존재이며, 자녀편에서는 부모란 최초로 갖게되는 사회적 경험과 동일화의 대상이며 또한 창조의 模範(modeling)이란 점에서, 관계는 教育的이고도 文化的인 관계이다. 네째,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또는 자녀자신의 諸變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역사적·법제적·관습적·도덕적 제조건, 즉 넓은 의미의 문화적 전통적 모든 조건에 의해서도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여섯째, 부모-자녀관계란 부부관계, 동기관계, 조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보다 넓은 친족관계의 일환이므로, 매우 복잡한 諸變因의 상호관련에서나 역동적인 인간관계의 역동성에서 결정된다. 일곱째, 그 가족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여덟째, 부모-자녀는 서로 다른 世代間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관계이다.

김재은(1983)은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감정적 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적 융합은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깨어지기 시작해서, 자녀들의 心理的 離乳와 함께 긴장,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양식과 가족집단성적 속에는 이 심리적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다.

Symonds(1939)는 부모-자녀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에 대하여 아동을 수용하며 사랑하는가, 아동들에게 애정을 주는 것을 거부하느냐와 아동을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지배하려 하는가, 부모가 아동의 요구에 복종하는가의 요인을 들고 있다.

Johnson & Midinnus(1974)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정서적인 관계라고 하였다. 성실한 부모는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알고 있으며,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며, 이 거울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아동기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비추어 볼 수 있다.

Daris(1979)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세대차이와 갈등을 두 가지 요인으로 보았다. 첫째,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들었다. 이 변화의 속도는 부모-자녀간의 세대의 차이를 점점 극대화시키고 각 연령층에 미

치는 사회적 영향은 많은 변이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고, 또 한 가지 현대사회의 특이한 현상으로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인권존중을 강조하는 것과 평등사상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제공, 개성존중 및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교육으로 인해 부모-자녀간 가치관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의 상이한 가치관과 규범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그들의 敎訓과 통제에 자신을 잃게 하며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불안해지고 일관성을 잃기 쉽게 만든다. 자녀들은 또한 부모의 절대적 권위에 회의를 품으며 그들의 자유와 자립성을 가능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려 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와 경향은 부모의 권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권위는 위협을 당하게 되어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다.

Erikson(1964)은 인간의 심리사회적인 생존은 조직된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속적이고 중복되는 세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함께 산다는 의미는 우연히 가까이 있게 되는 것 이상으로,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의 단계는 타인의 단계와 생활 속에서도 조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4. 선행연구

1) 훈육의 경험

Kohn & Arrol(1960)은 사회계층에 따른 훈육의 여러 가지 유형에 관하여 실험하였는데 여기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류층의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이 행동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개인 자원을 갖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노동자층의 부모는 자녀들이 평판 좋게 행동하는 것과 적절한 규범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rr(1965)는 소년과 소녀의 권위주의와 엄격한 부모의 훈육과는 의의있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理性的 父母의 훈육태도와 아동의 권위주

의와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신(1986)은 아동이 나타내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훈육방법 및 아동의 감정이입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모두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 훈육의 세대별 경향

최원기(1968)는 한국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자녀관계를 통제방법 중 훈육방법을 중심으로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교육정도와 연령의 요인으로 고찰한 결과, 조부모세대보다 부모세대가 더욱 민주적으로 훈육했으며 부모의 통제에서는 교육정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양보하며 벌은 부드럽게 주었고, 부모-자녀간에 rapport와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와 연령에 차이가 없었다. 즉, 조부모가 수행한 훈육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였다고 한다.

이정숙(1977)은 세대간의 훈육방법에는 서로 일치성이 있는가, 또 훈육방법의 경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연구한 결과 세대간의 훈육방법에는 일치성이 있으며 조부모세대는 전제적이고, 부모세대는 혼란한 훈육이며, 자녀세대에서는 민주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김재은(1977)은 Radke가 사용한 질문지로서 한국 가정에서의 훈육방법에 대한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간의 개념차이를 서울시내의 중류 및 중하류계층 가정의 부모의 권위의 철학, 제한, 벌의 경중, 친숙도, 상대적 책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부모가 받은 훈육가 자녀에게 주는 훈육간에는 +4.33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부모들은 전제적인 통제 밑에서 자랐으나 자신들은 민주적으로 자녀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 벌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부모-자녀간의 친밀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줄었다고 한다.

홍성은(1980)은 훈육방법을 중심으로, 학령전 이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경험한 훈육방법과 실제 자기 자녀에게 행하고 있는 훈육방법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여기서 권위의 철

학에서는 조부모세대보다 부모세대가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취하여, 부모의 제한적도에서는 조부모세대보다 부모세대가 엄격하고 완고하게 제한하며, 벌의 경중척도에서는 부모의 제한척도와 마찬가지로 조부모세대보다 부모세대가 가혹하게 훈육하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척도에서는 조부모세대에서보다 부모세대가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5. 가 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훈육방법에 있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 가정의 수입정도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동기의 발달과정을 성취하여 신체지능에 있어서나 인성 및 지적 사회적 발달에서나 완숙한 아동기에 놓인 국민학교 6학년이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임의로 서울시내의 강남 국민학교와 송례국민학교의 두 곳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父와 母의 표집수를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표집의 반수는 父에게, 나머지 반은 母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따라서 부와 모는 각각 다른 가정에서 표출되었다.

강남국민학교와 송례국민학교에 각각 250명씩 배부한 결과 456부 회수하여 회수율이 91.2%였으며, 이 중에서 문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응답이나 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변인	내용	부	모	계
부모의 연령별 분포	31세 ~ 40세	41명 (23.2)	135명 (68.5)	176명 (47.1)
	41세 ~ 50세	127명 (71.7)	62명 (31.5)	189명 (50.5)
	51세 ~ 60세	9명 (5.1)	0	9명 (2.4)
	계	177명 (100)	197명 (100)	374명 (100)
부모의 교육정도별 분포	무학	0	1명 (0.3)	1명 (0.3)
	국졸	1명 (0.5)	7명 (3.7)	8명 (2.2)
	중졸	34명 (19.2)	33명 (16.6)	67명 (17.8)
	고졸	86명 (48.6)	110명 (55.9)	196명 (52.4)
	대학졸	49명 (27.7)	45명 (22.8)	94명 (25.1)
	대학원졸	7명 (4)	1명 (0.5)	8명 (2.2)
계	177명 (100)	197명 (100)	374명 (100)	
부모의 직업별 분포	전문 및 기술직	29명 (27.7)	7명 (35.6)	56명 (15.0)
	행정 및 관리직	16명 (9.0)	1명 (10.5)	17명 (4.5)
	사무직	21명 (11.9)	1명 (10.5)	22명 (5.9)
	판매 종사자	31명 (17.5)	13명 (6.6)	44명 (11.8)
	서비스직	20명 (11.3)	2명 (1)	22명 (5.9)
	군인	1명 (0.5)	0	1명 (0.3)
	농·축·임·수산업 및 수렵	7명 (3.95)	2명 (1)	9명 (2.4)
	생산, 운수 장비 운전자 및 단순노무자	24명 (31.6)	0	24명 (6.4)
	분류 불능	8명 (4.5)	4명 (2)	12명 (3.2)
	주부	0	167명 (84.8)	167명 (44.7)
계	177명 (100)	197명 (100)	374명 (100)	
가정의 총 월수입분포	40 만 원 이하			112명 (29.9)
	41 ~ 70 만 원			166명 (44.4)
	71 ~ 100 만 원			77명 (20.6)
	101 만 원 이상			19명 (5.1)
계			374명 (100)	

* 직업 분류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3)분류에 준한 것임.

응답이 많은 82부를 제외한 374(74.8%)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성별 분포는 응답자 374명 중에서 아버지가 177명(47.3%)이며, 어머니가 197명(52.7%)으로 응답자의 상황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연령별 분포를 볼 때, 40대가 50.5%로 가장 많다. 또한父에 있어서는 40대가 71.7%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며, 母에 있어서는 30대가 68.5%로 높은 비율로 포집되었다. 가장 높은 연령인 50대의 경우는 母는 없었으며, 父의 경우는 5.1%로 포집되었다.

응답자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父가 母보다 비교적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직업별 분포를 보면 母는 주로 주부에 응답했으며, 父의 경우는 전문 및 기술직, 판매종사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의 총 월수입 분포에서는 41~70만원이 44.4%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만원 이하가 29.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M.J. Radke (1946)의 "Parents' Inventory"를 김재은(1977)이 번안하여 만든 것이며, 전문 127문항 중 이 연구에 적당치 않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1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척도에 따라 다르며 각 척도에 따른 해당문항 번호와 그 척도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권위의 철학(philosophy of authority)

전제적—민주적 (3, 8, 46, 60 : 70, 74, 106, 107)
<기준>

전제적 분위기 : (가) 부모가 모든 방침을 결정한다. (나) 아동의 활동을 경우마다 부모가 지시하며 부모의 장차의 행동방향은 아동들에게 전혀 불명하다.

민주적 분위기 : (가) 방침이란 것은 가족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된다. (나) 아이들은 행동의 방향을 설명든 고 어떤 전망을 갖게 된다.

2) 부모의 제한(parental restriction)

엄격하고 완고하다—허용적이다 (10, 22, 24, 25, 27, 33, 45 : 69, 71, 86, 98, 100, 102, 110)

<기준>

엄격하고 완고한 훈육 : (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제한범위를 부모가 엄격하게 유지해 간다. (나) 자녀들이 부모의 제한을 깨뜨리기 심히 곤란하며 자녀들이 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이를 봉쇄해 버린다.

허용적인 훈육 : (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제한범위를 부모들이 약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정한다. (나) 자녀들은 부모의 제한을 비교적 쉽게 깨뜨릴 수 있다.

즉, 자녀의 힘에 대해서 부모가 양보한다.

3) 법의 경중(severity of punishment)

심하다—부드럽다 (34, 44, 59, 62 : 73, 87)

<기준>

심하다 :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벌이 가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부드럽다 :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벌이 부드럽다는 것을 인정한다.

4) 부모-자녀간의 친숙도(parent-child rapport)

높다—낮다(아버지와와의 관계 : 4, 36, 41, 47, 49, 50, 51, 61 : 66, 75, 76, 103, 105, 108, 109. 어머니와의 관계 : 20, 39, 43, 47, 49, 57, 65 : 66, 76, 89, 103, 108, 109)

<기준>

좋은 관계다. (가)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와 행동에 관심을 표시하며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일에 동참한다. (나)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한다. (다) 부모-자녀 사이가 적극적인 애정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라) 부모-자녀간에 불유쾌한 정서관계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의 훈육에서 맡은 상대적 책임(relative responsibility of father and mother in discipline of child)

같은 정도의 책임—서로 다른 책임 (6, 21 : 78, 92)

책임이 같다 : (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훈육상의 책임을 똑같이 나누어진다. (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똑같이 순종한다.

책임이 같지 않다 : (가) 자녀의 훈육에 한 쪽 부모가 주로 책임을 진다. (나) 자녀들은 한 쪽 부모에게만 순종한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기간은 1987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강남국민학교와 승례국민학교의 협조를 얻어 부록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배부하고 집으로 가져가 부모가 응답케 한 후 각 담임 선생님을 통해 회수하였다.

채점기준은 권위의 철학에서는 「민주적」에, 부모의 제한에는 「허용적이다」에, 벌의 경중에서는 「부드럽다」에,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에서는 「높다」에, 자녀의 훈육에서 맡은 상대적 책임에서는 서로 다른 책임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각 문항마다 '거의 그런 일이 없었다,' '가끔 그랬다,' '늘 그랬다'에 각각 0점, 1점, 2점씩 주었으며, 부정적인 서술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반응에 따라 반대로 점수를 주었다. 척도들의 구성문항 수가 세대에 따라 다른 것이 있어 이들 점수의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 점수를, 총점율, 구성문항 수를 평균하였다. 따라서 처리된 척도점수는 0~2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통계처리는 동국대 통계학과에서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PC+Program을 이용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父母世代와 子女世代間の 비교

각 척도에 따라 두 세대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세대간의 비교는 직접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비교가 아니고, 현재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동기때 경험한 훈육방법에 대한 지각과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방법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통제받았느냐의 문제와 함께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인상, 즉 자기가 얻은 통제의 방법에 어떤 의

미를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1) 권위의 철학에서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

기준을 민주적인데다 두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은 것은 민주적임을 나타낸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있어서의 반응의 차이를 보면 자녀세대에 와서 권위적 경향이 줄어들면서 자녀의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향상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에서 부모세대란은 부모 자신이 받은 훈육방법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자녀세대란에는 자신들이 실제로 자기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방법을 의미한다.

〈표 2〉에서 전체-민주척도는 $P < 0.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을 긍정하여 두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는 민주적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민주적이란 점은 그 내용면에서 볼 때 아동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아동이 의논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체적인 방법은 아동을 무시하거나 아동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의 제한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

〈표 2〉의 엄격-허용척도는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을 긍정하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표 2〉 각 척도에 따른 세대별 비교

척도	부모세대		자녀세대		t	df
	M	S.D.	M	S.D.		
전체-민주	.9766	.445	1.4111	.416	-14.90***	373
엄격-허용	.9301	.293	1.0138	.257	-4.76***	373
심하다-부드럽다	1.2680	.418	1.0147	.476	8.22***	373
높다-낮다 (1)	1.1651	.371	1.4484	.320	12.21***	373
높다-낮다 (2)	1.3919	.311	1.4694	.292	-4.05***	373
높다-낮다 (3)	1.2785	.292	1.4589	.294	-9.71***	373
같다-다르다	.8235	.491	1.0749	.491	-7.91***	373

*** = $P < .001$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에서 보다 허용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취하고 있음이다. 즉, 부모자신이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훈육방법보다 자신이 실제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방법에서 훨씬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罰의 경중에서의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간의 비교

기준을 輕에 두었으므로 점수가 많을수록 벌을 輕하게 준 것이고, 낮은 점수일수록 가혹하게 다룬 것이다. <표 2>에서 벌의 경중이 심하다-부드럽다 척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것을 보면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을 긍정하여 가혹하다-부드럽다 척도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벌에 있어 가혹한 훈육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부모자신이 자기의 부모에게서 받은 훈육방법보다 실제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방법이 훨씬 가혹함을 의미한다.

4) 父母-子女間 親熟度 比較

친숙도가 높은 곳에 점수를 주었으며 자녀훈육에 있어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로 분리하여 비교하였다.

①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친숙도 비교

자녀와 아버지와의 친숙도의 높다-낮다 ①의 척도에서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긍정되어 친숙도 척도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다 좋은 친숙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②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숙도 비교

<표 2>에서 자녀와 어머니와는 친숙도 높다-낮다 ② 척도를 보면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긍정되어 세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다 좋은 관계임을 나타낸다. 또한 척도 ①과 ②를 비교해 보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어머니

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비교

<표 2>의 높다-낮다 ③에서와 같이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긍정되어 세대간의 친숙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자기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신이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5) 부모의 상대적 책임에서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

기준은 서로 다른 책임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따라서 높은 점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한 쪽 부모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며, 낮은 점수는 부모의 책임이 공동인 것을 의미한다.

<표 2>의 같다-다르다 척도에 의하면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긍정되어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 와서 한쪽 부모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문항별(6: 78, 21: 92) 책임비교에 의하면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 와서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 커지고 있고, 아버지의 책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어머니의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수입정도별이 자녀훈육에

<표 3> 책임의 문항별 비교

	부모세대	자녀세대
아 버 지	.7379	.8315
어 머 니	.9652	1.3235

〈표 4〉 부모의 성별 전제-민주 척도

변인	부모세대		자녀세대		t	df
	M	S.D.	M	S.D.		
父	.9732	.452	1.3743	.391	-9.95***	176
母	.9797	.439	1.442	.436	-11.10***	196

***P<.001

〈표 5〉 부모의 성별 엄격-허용 척도

변인	부모세대		자녀세대		t	df
	M	S.D.	M	S.D.		
父	.8912	.284	.9960	.264	-4.20**	176
母	.9651	.297	1.0297	.250	-2.60*	196

*=P<.05 **=P<.01

〈표 6〉 부모의 성별 심하다-부드럽다 척도

변인	부모세대		자녀세대		t	df
	M	S.D.	M	S.D.		
父	1.1935	.402	.9887	.483	4.51***	176
母	1.3350	.421	1.0381	.471	7.10***	196

***P<.001

〈표 7〉 부모의 높다-낮다 척도

변인	부모세대		자녀세대		t	df
	M	S.D.	M	S.D.		
父	1.2534	.297	1.3830	.316	-4.57***	176
母	1.3010	.286	1.5272	.256	-9.41***	196

***P<.001

〈표 8〉 女와 母와의 친숙도 높다-낮다 척도

변인	M	S.D.	t	df
母	1.3882	.294	-.14	176
女	1.3923	.311		

〈표 9〉 부모의 같다-다르다 척도

변인	부모세대		자녀세대		t	df
	M	S.D.	M	S.D.		
父	.8446	.477	1.0763	.407	-5.09***	176
母	.8046	.504	1.0736	.396	-6.05***	196

***P<0.001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비교

① 부모의 성별에 따른 권위의 철학

부모의 성별, 즉 父와 母에 따라 자신들이 경험한 훈육방법간에 권위의 철학척도에서 분석한 것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성별에 따라 부모자신들이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방법을 볼 때, P<.001에서 유의한 차이로 〈가설 2〉를 긍정하여 전제-민주척도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중 母가 자신의 자녀에게 더 민주적으로 훈육한다고 지각하고 있다.

② 부모의 성별에 따른 제한

〈표 5〉에서와 같이 父, 母 모두 P<.0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가설 2〉를 긍정하여 부·모 모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부모의 성별에 따른 벌의 경중

〈표 6〉에서와 같이 부모의 성별에 따른 벌의 경중

비교에서는 P<.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2〉는 긍정되어, 심하다-부드럽다 척도는 부, 모 모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평균에서처럼 부·모 모두 부모세대보다 자신의 자녀훈육에서 벌을 더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父보다 母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더 부드럽게 훈육받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④ 부모의 성별에 따른 친숙도 비교

〈표 7〉에서 부·모에 따른 부모세대와의 친숙도에 대하여 P<.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가 긍정되어 父와 母 모두 부모세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父보다 母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父와 祖父, 父와 祖母, 母와 祖父, 母와 祖母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다음 〈표 8〉의 경우처럼 母와 祖母와의 친숙도

관계이다. <표 8>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가설 2>는 부정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父가 지각하는 祖母와 母간의 자녀에 대한 친숙도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⑤ 성별에 따른 부모의 상대적 책임 비교

<표 9>에서 父와 母에 따른 부모의 상대적 책임비교 척도에서는 부와 모 모두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는 긍정되어 차이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에서 부모세대보다 부모의 공동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령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

자녀훈육방법을 부모의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때 부모의 연령은 30代, 40代, 50代로 분류하였던 바 이에 따른 각 척도별 차이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권위의 철학

<표 10>을 보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비교에 있어, 30代와 40代에서는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가설 3>을 긍정하고, 50代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정되었다. 여기서 받은 훈육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자신의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에서 30代의 어머니가 가장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행동제한

<표 11>의 연령별 엄격-허용 척도를 보면 父의 40代와 母의 30代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3>을 긍정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가설 3>을 부정하여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즉, 父의 40代와 母의 30代에서는 받은 훈육보다 자녀훈육에서 더 허용적인 훈육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벌의 경중

<표 12>의 연령별 벌의 심하다-부드럽다의 척도에서는 모두 $P < .05$ 로 <가설 3>은 긍정되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훈육보다 자녀에게 더 심하게 훈육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父의 연령이 적을수록 더 부드럽게 훈육받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훈육에도 부드럽게

<표 10> 부모의 연령별 전제-민주 척도

변 인	부 모 세 대		부 모 세 대		t	df	
	M	S.D.	M	S.D.			
父	30~40세	1.0179	.403	1.3393	.361	-4.18***	41
	41~50세	.9544	.460	1.3849	.388	-9.09***	125
	51~60세	1.0278	.579	1.3889	.574	-1.40***	8
母	30~40세	.9981	.433	1.4739	.428	-9.50***	133
	41~50세	.9405	.453	1.3810	.449	-5.76***	63

*** $P < .001$

<표 11> 부모의 연령별 엄격-허용 척도

변 인	부 모 세 대		자 녀 세 대		t	df	
	M	S.D.	M	S.D.			
父	30~40세	.8690	.297	.9626	.251	-1.90	41
	41~50세	.9038	.277	1.0125	.266	-3.54**	125
	51~60세	.8194	.325	.9206	.295	-1.47	8
母	30~40세	.9580	.306	1.0181	.249	-2.03*	133
	41~50세	.9802	.280	1.0544	.255	-1.65	62

*= $P < .05$ **= $P < .01$

〈표 12〉 부모의 연령별 심하다-부드럽다 척도

변 인	부 모 세 대		자 녀 세 대		t	df	
	M	S.D.	M	S.D.			
父	30~40세	1.2440	.347	1.000	.481	2.58**	41
	41~50세	1.1766	.417	.9960	.488	3.30***	125
	51~60세	1.1944	.447	.8333	.433	2.73*	8
母	30~40세	1.3284	.408	1.0373	.465	6.05***	133
	41~50세	1.3492	.450	1.0397	.486	3.78***	62

*=P<.05 **=P<.001 ***=P<.001

〈표 13〉 부모의 연령별 높다-낮다 척도

변 인	부 모 세 대		자 녀 세 대		t	df	
	M	S.D.	M	S.D.			
父	30~40세	1.2929	.324	1.4031	.312	-1.83	41
	41~50세	1.2477	.268	1.3793	.312	-4.03***	125
	51~60세	1.1488	.514	1.3413	.405	-1.18	8
母	30~40세	1.2904	.290	1.5165	.270	-7.58***	133
	41~50세	1.3237	.279	1.5499	.222	-5.57***	62

***=P<.001

〈표 14〉 부모의 연령별 같다-다르다 척도

변 인	부 모 세 대		자 녀 세 대		t	df	
	M	S.D.	M	S.D.			
父	30~40세	.8333	.502	1.0476	.466	-2.09*	41
	41~50세	.8413	.476	1.0913	.387	-4.66***	125
	51~60세	.9444	.391	1.0000	.433	-.55	8
母	30~40세	.7799	.515	1.0896	.392	-5.51***	133
	41~50세	.8571	.479	1.0397	.405	-2.61**	62

*=P<.05 **=P<.01 ***=P<.001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의 부모의 연령별 상대적 책임이 같다-다르다 척도에서는 50代를 제외한 30代, 40代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긍정되어,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자녀에 대한 한쪽 부모의 책임이 높아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

부모의 교육수준은 무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 분포되었으나 무학은 1명으로 제외하고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서 각 척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①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권위의 철학

〈표 15〉의 교육정도별 전체-민주 척도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4〉는 긍정되어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민주적인 훈육을 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父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훈육방법에서 민주적인 방식을 택함을 볼 수 있다.

〈표 15〉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전체-민주 척도

변 인	부 모 세 대		자 녀 세 대		t	df	
	M	S.D.	M	S.D.			
父	중 졸	.8971	.422	1.2647	.422	-4.45***	33
	고 졸	.9767	.438	1.3721	.392	-7.04***	85
	대 졸	1.0051	.506	1.4439	.383	-4.89***	48
母	대학원졸	1.0000	.382	1.4443	.173	-4.60**	6
	국 졸	.8125	.417	1.6250	.354	-4.08***	7
	중 졸	.9773	.435	1.3788	.396	-4.29***	32
	고 졸	.9727	.430	1.3841	.466	-7.04***	109
대 졸	1.0167	.472	1.5944	.355	-7.07***	44	

=P<.01 *=P<.001

〈표 16〉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높다-낮다 척도

변 인	부 모 세 대		자 녀 세 대		t	df	
	M	S.D.	M	S.D.			
父	중 졸	1.2096	.343	1.3466	.316	-2.09*	33
	고 졸	1.2434	.281	1.3397	.337	-2.40*	85
	대 졸	1.2992	.288	1.4840	.277	-3.30**	48
	대학원졸	1.3061	.341	1.4082	.153	-.74	6
母	국 졸	1.2199	.287	1.4821	.208	-3.17*	7
	중 졸	1.3474	.288	1.4913	.247	-2.40*	32
	고 졸	1.3129	.285	1.5299	.261	-6.73***	109
	대 졸	1.2444	.283	1.5444	.256	-5.87***	44

*=P<.05 **=P<.01 ***=P<.001

②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친숙도

〈표 16〉 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친숙도의 높다-낮다 척도에서는 대학원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가설 4>를 긍정하여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좋은 관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평균(M)을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은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의 척도, 즉 행동제한, 벌의 경중, 부모의 상대적 책임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각각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훈육방법과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하고 있는 훈육방법을 어떻게 다르며, 또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하여 두 세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훈육방법에 있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4) 부모의 교육정도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

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5) 부모의 수입정도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을 가진 부모 374명(부 : 177명, 모 : 197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록에 있는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Radke의 「Parents' Inventory」를 사용했으며, 이를 다섯 가지 척도별로 통계 처리하였다.

다섯 가지 척도는 다음과 같다.

- 1) 권위의 철학(전제적-민주적)
- 2) 부모의 제한(엄격-허용)
- 3) 벌의 경중(심하다-부드럽다)
- 4) 부모-자녀간의 친숙도(높다-낮다)
- 5)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자녀의 훈육에서 맡은 상대적 책임(같다-다르다)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두 세대간의 비교에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하여 권위의 철학척도에서는 보다 민주적으로,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는 보다 허용적으로, 벌의 경중척도에서는 보다 심하게 훈육하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척도에서는 보다 좋은 관계로, 부모의 책임척도에서는 아버지의 책임에는 변화가 없으나 어머니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경향이다.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권위의 철학척도에서는 부모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으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하고 있다.

3) 부모의 연령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다 허용적인 훈육을 받았으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척도에서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하고 있다.

4)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만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더욱 허용적인 훈육을 하고 있다.

5) 부모의 수입정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벌의 경중척도는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으며,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드럽게 훈육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가정의 훈육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국민학교 6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훈육과 자기자녀들에게 하는 훈육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녀훈육유형의 변화추세를 살펴 보았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를 살펴보면, 권위의 철학척도에서는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취하고 있어, 부모세대 자신은 상당히 전제적 훈육을 받았으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 김재은(1967), 최원기(1968), 이정숙(1977), 홍성은(1980)과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부모의 제한척도에서는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허용적이고 안이한 훈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이와 상이한 다른 연구(김재은, 최원기, 홍성은)와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관 도입에 따른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벌의 경중척도에서는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보다 심한 훈육방법을 취하고 있어 부모의 제한척도의 결과와는 배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설문(34, 44, 59, 62)의 어머니(아버지)가 주시는 벌이 “가혹했다”의 내용검토를 거쳐 주장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친숙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보다 향상된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의 상대적 책임척도에서는,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에서 아버지의 책임에는 별 변화가 없으나 어머니의 책임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사회의 구조상 아버지의 직업 전문화로 인한 어머니의 자녀지도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가

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성별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권위의 철학척도에서는 父母의 父보다 母가 자녀에게 더 민주적이고 훈육방법을 취하며, 별의 경중척도에서는 父보다 母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母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 전통사회에서 「아들」에 대한 훈육이 보다 엄격하고 부자관계의 친숙도 역시 낮음으로써 그들의 자녀지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가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보다 유연하고 친숙해 질 것이 기대된다.

3)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부모의 행동제한 척도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다 허용적인 훈육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의 자녀에게도 허용적인 훈육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30代의 어머니가 가장 민주적인 훈육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의 경중척도에서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훈육보다 자녀에게 더 심하게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父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다고 지각하고 있고 자신의 자녀훈육에도 부드럽게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친숙도 척도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도 긍정적인 관계로 지각하고 있다.

4)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서, 권위의 철학에서 父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훈육방법에서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부모의 제한척도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허용적인 훈육방법을 택하고 있다.

5) 부모의 수입정도 따른 두 세대간의 비교에 있어, 별의 경중척도에서는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드럽게 훈육받았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드럽게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원과 교육수준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세대에서는 전제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행동제한에는 엄격하고 완고하나 벌은 비교적 부드럽게, 또 친숙도 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세대는 행동제한에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윗 세대보다 다소 민주적인 한편, 벌을 줄 때는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심하게 주고 있다. 친숙도 면에서는 부모세대보다 높음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전제적인 관계에서 민주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표본대상이 서울지역으로 제한된 점, 그리고 양육받은 과거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한 점 등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한편, 父가 子·女에게, 또 母가 子·女에게 행하는 훈육방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 센서스, 서울: 경제기획원, 1980.
2.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6, p. 37.
3.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1970 pp. 53-55.
4. 김지신,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어림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이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5.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대출판부, 1983.
6. 김재은, 인간행동의 발달 및 측정, 서울: 한국교육총서 출판사, 1977.
7. 박경란, 서울시 가족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 동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8. 안순자, 자녀훈육방법으로써의 질책에 관한 연구, 서울: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4.
9. 오태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나남, 1985.
10.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서울: 일지사,

- 1983, p. 331.
11. 이정덕·아동학, 서울 : 수학사, 1986, pp. 53-55.
 12. 이정식,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변화, 경북 :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3.
 13. 이정숙, 한국가정의 자녀훈육에 관한 세대별 연구, 서울 :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7.
 14. 이화정, 부모의 훈육태도 및 방법과 아동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1968.
 15.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 진명출판사, 1979, pp. 233-239.
 16. 주정일, “어린이훈육”, 「대한가정학회지」 제2권, 1960.
 17. 최원기, 한국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서울 : 이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68.
 18. 최재석, 한국가족의 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19. 함인회, 한국가족형태의 변화, 서울 : 이대 석사논문, 1983.
 20. 홍성은, 자녀훈육에 관한 조부모와 부모간의 분석연구, 서울 :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0.
 21. A.T. Jersild, *Child psychology*. Englewood lifts: N.J. Prentice-Hall, 1960, p. 89.
 22. B.D. Starr, “Disciplinary attitudes of both parents and authoritarianism in their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26:3482, 1965.
 23. Becker, W.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Hoffman and L. Hott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sell Sage, 1964, pp. 169-208.
 24. Bigner, J.J. Parent-Child Rerations 이은화 이경우 공역, 창지사, 1985, pp. 64-66.
 25. E.B. Hurlock, *Child Development*, (6th) New York: McGrow-Hill, 1983, pp. 392-393.
 26. Erikson, E. *Insight and re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p. 114.
 27. Gerald R. Leoslie, *The Family in Social Conf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208-210.
 28. Johnson, R.and G. Medinnus, *Child Psychology: Behavior and development*, (3th), New York: Wiley, 1974.
 29. Kingsley Daris, *The Socilogy of parent-youth conflict in M.B. Sussman*, 1970, pp. 266-280.
 30. K.T. Berngardt, *Discipline and child Guidance*, New York: MCGrow-Hill, 1964, p. 9.
 31. M.E. Breckenridqe & E.L. Vincent, *Child Development* (5th), London: W.B. Saunders, 1965, p. 83.
 32. M.J. Radke, *The relation of parental authority to children's behavior and stititudes. Minneapoli: The University Minnesota Press*. 1946, pp. 109-112.
 33. M.L. Kohn and E.E. Carroll, “Social class and the alloca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ities”, *Socieometry*, 1960, pp. 372-392.
 34. Nickel, Rice, Tucker,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New York: John Loilly & Sons Inc, 1976, pp. 14-16.
 35. P.M. Symonds,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39.
 36. Talbot, Topy *The world of the child essays on childhood*. Inc Garden City New York, 1967, p. 404.
 37. Ross, A,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26-39, 1968,